

여성결혼이민자의 지각된 한국어능력 발달에 자아존중감이 미치는 영향 - 성장혼합모형을 활용하여 -

최원미* · 김우진**

요약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 패널 자료인 1~4차 자료를 이용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능력 발달 양상과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한국어능력 발달의 잠재집단 유형을 확인하기 위해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고, 특성변인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능력은 적합도지수와 잠재계층분류에 따라 2개의 하위유형이 선택되었다. 1유형은 '유지형'으로 언어능력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특정 패턴을 나타내지 않는 집단이며, 2유형은 '상승형'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언어능력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집단이다. 둘째, 유형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자아존중감'이 한국어능력 잠재집단 분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유지형집단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상승형 집단을 비교한 결과 자아존중감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증가하면 유지형 집단에 비해 상승형에 속할 확률이 13.696배 증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 제한점, 그리고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여성결혼이민자, 자아존중감, 성장혼합모형, 한국어능력, 제2언어습득

* 제1저자/교신저자, 한국학대학원, 한국문화학, 석사과정, wonmi85@hanmail.net

** 공동저자, 텍사스주립대, 체육교육학, 박사후과정수료, mystatsolve@gmail.com

1. 서론

대한민국 사회는 2000년대 본격적으로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이래 다문화가 족서비스와 사회통합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여성결혼이민자 대상의 한국어교육에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이상규 2007). 주지하다시피 현지어능력은 이주민의 이주국가 문화적응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Espenshade and Fu 1997: 288). 국내 여성결혼이민자 언어능력에 관한 기존 논의를 살펴보면, 낮은 한국어능력은 가족구성원과의 의사소통 장벽이 되어 가족 간 화합의 문제를 야기하고(이주여성인권포럼 2013), 자녀의 학업과 학교생활 지도에 어려움이 따르게 되어 자녀양육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며(최은경 외 2019) 이웃과 관계를 맺거나 구직활동을 하는 것에 제약이 따르게 되어 사회활동에 방해가 된다(박진옥·최대희 2019).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문제 외에도 의사소통단절로 인한 고립감, 모국어의 사용이 차단된 환경에서 느끼는 박탈감과 정체성의 문제 등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있어 한국어성취는 이주 후 정착의 성공여부를 가늠하는 절대적인 바로미터로 여겨진다.

그러나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능력의 중요성이 충분히 입증된 것에 비해 구체적으로 이들의 한국어능력이 체류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어떠한 패턴으로 변화하는지 그 양상을 살펴보는 연구는 드문 편이며, 한국어능력 발달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또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들은 주로 경제적으로 낙후된 아시아지역에서 결혼을 매개로 한국의 농촌사회로 시집온 여성들로, 노동이주자처럼 몇 년 머물다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전 생애에 걸쳐 한국사회에 정착해 살아가는 존재이다(최은경 외 2019: 622). 대부분은 한국으로 이주해 오기 전 한국어를 전혀 접할 기회가 없었고 이주 후에는 임신·출산·육아를 수행하며 정규 한국어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조현지 2011: 32). 본고는 유학생이나 노동이민자, 전문직 종사자 이민자들과는 성격과 특징이 판이한 한국 거주 여성결혼이민자의 환경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들의 한국어능력이 거주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하는지 살펴보고 그러한 변화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찾아내는 실증연구가 필

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세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능력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고 그에 따른 잠재집단을 구분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이민자 이주국가 언어능력 영향요인은 연령이나 거주지, 출신국가 등과 같은 변수를 횡단적으로 비교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횡단적 조사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체류기간 증가에 따른 시간적 변화의 유형이나 추세를 파악하기 어렵고, 대상자의 변화과정과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종단적 관점에서 거주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언어능력이 어떠한 발달과정을 거치는지 확인해 보고자한다. 또한 잠재집단 분석기법은 그간 여성결혼이민자 전체를 하나의 모집단으로 바라보고 평균치로 분석하였던 선행 논의보다 한층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개별 그룹의 특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잠재집단을 분류한 뒤 집단별 차이를 발생시키는 변인으로써 ‘자아존중감’의 영향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그동안 여성결혼이민자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는 삶의 질, 결혼생활만족도에 미치는 변인으로서만 다루어져 왔으며 한국어능력 영향요인으로서 논의된 적은 없다. 그러나 제2언어습득의 정의적 요인으로서 자아존중감의 역할과 중요성은 이미 검증된 바 있다(Rubio 2021). 언어습득에 영향을 주는 자아존중감은 교실 내에서 발견되는 학습자 자아존중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일상생활 속 자아존중감과도 관련이 깊다(Epstein 1985; Rubio 2021: 72에서 재인용). 여성결혼이민자에게 한국어능력은 학습(learning)보다는 습득(acquisition)의 형태로 구현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교실 밖에서 발견되는 일상적 자아존중감이 한국어 습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의의를 높일 것이라고 보았다.

셋째, 자아존중감 외에도 인구학적 특성, 사회학적 특성에 해당하는 변수를 대입하여 기존 이민자 대상의 언어능력 영향요인 연구 결과와 상호 대조해 보고자 한다. 이는 이민자 대상의 제2언어습득과 국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능력 발달 양상이 다르게 전개될 수 있음을 확인하여 이들의 고유한 배경과 특성을 반영한 후속 연구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 이외에도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능력 영향요인에 관한 논의는 적게나마 존재한다(황민철 2016; 민성희·박정호 2013; 주월랑 2021; 김세정 2015; 송운옥 2014). 그러나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능력 영향요인으로서 자아존중감을 주목하는 연구는 많지 않으며 특히 잠재집단을 분류한 종단적 분석을 수행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므로 본고는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능력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되는지 그룹별로 파악하고, 그러한 차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서 개인의 자아존중감의 영향도를 검증하여 추후 장기체류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2. 이론적 배경

1) 제2언어습득에서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self-esteem)’이 제2언어습득에 분명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만은 자명하다고 주장하는 연구들이 최근 들어 국외를 중심으로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Habra 2018; Alrabai 2017; Peleg 2009). 그러나 언어학습이 왜 다른 학문분야보다 더 ‘자아’와 관련이 깊으며 그러한 관련성이 구체적으로 제2언어습득 과정에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에 관한 연구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 자아존중감은 “태도로 표현되는 스스로에 대한 가치판단”(Coopersmith 1965)이자 “자신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에 관한 태도(Rosenberg 1965)이며 “자신이 삶의 기본적인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행복할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주로 정의되어왔다(Branden 1994; Rubio 2021에서 재인용). 국내에서 이루어진 이주민 자아존중감과 관련한 논의는 Rosenberg(1965)의 정의를 주로 인용하는 편이다(김미강·김영주 2021; 한광현·강상경 2021; 권복순 2009).

건강한 자아존중감은 제2언어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의 잠재력에 대해 긍정적인 믿음을 갖게 하여 헌신적이고 책임감 있는 학습태도를 갖도록 도우며(Arnold

2007; Rubio 2021: 14에서 재인용) 목표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고자 쏟아 붓는 노력의 양을 결정한다(Brown 2019: 179). 자기표현의 기능이 강한 ‘말하기’의 경우 청중의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습자들은 부정적인 피드백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며 실수에도 너그럽게 반응하는 것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낮은 학습자들은 실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언어적 상호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게 되며 결과적으로 낮은 성취를 얻게 된다(Piechurska-Kuciel 2012: 232). 자아존중감이 구체적으로 교실학습에 어떻게 기여하는가와 별개의 문제로, 현재까지 이루어진 논의에서 자아존중감이 학업성취와 개인적 성장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Rubio 2021).

여성결혼이민자의 이주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어능력과 자아존중감과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한 언어적 세계에서 다른 언어적 세계로’ 자아의 이동을 경험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이주여성인권포럼 2013). ‘언어’는 다른 어떤 학문분야보다도 깊은 자아의 몰입을 수반한다(Piechurska-Kuciel 2008; Habrat 2018: 40에서 재인용). 또한 언어는 인간 정체성의 구성요소이면서 동시에 그러한 정체성을 주변 세계에 표현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되는데, 새로운 언어를 활용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상호 노력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학습자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사회적 정체성을 만들어낸다(Casal 2007; Rubio 2021: 94에서 재인용). 제2언어습득은 단순히 언어적 지식만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언어에 포함되어있는 문화와 가치관까지 함께 받아들이는 과정이다(성기철 2001). 여성결혼이민자의 이주 이후 이중언어 구사자로서 초국적 자아를 형성해가는 시작부터 전 생애에 걸쳐 일어나는 한국어습득 과정에서, 그들의 변화되는 자아존중감이 언어습득을 위한 중요한 변인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능력 영향요인

한국어능력이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에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진 것에 비해 한국어능력 발달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외

부 변인에 관한 연구는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황민철(2016)은 Chiswick과 Miller(1998; 2001)가 제시한 이민자 이주국가 언어습득 모델을 차용하여 국내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능력 향상의 변인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이주 이후 한국어 노출, 개인의 능력, 경제적 동기가 한국어 실력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며 출신국가나 민족에 따라서도 한국어 능력이 달라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전까지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능력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가 전무하다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 같은 시도는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실력 향상에 영향을 주는 최초의 변인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이 연구는 횡단연구로서 특정 시점에 미치는 영향요인만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여성결혼이민자 한국어능력의 ‘중단적 변화’에 미치는 변인을 밝혀내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민성희·박정호(2013)는 다문화가족 이민자의 한국어실력 결정요인으로 밀집거주지와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는데 한국어실력이 현저히 뛰어난 중국 조선족의 경우 밀집거주로 인해 오히려 한국어 말하기, 읽기, 쓰기 실력이 모두 저하되었으며 한국어 실력이 낮은 것으로 조사된 베트남과 필리핀 이민자는 밀집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비슷한 한국어실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밀집거주로 인한 언어능력의 변화는 일정수준 이상의 언어능력 이상을 갖춘 여성들에게만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선족의 경우 이주 이후 결혼이민자임을 주변에 밝히지 않고 선주민들과 어울려서 사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한국어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에(최은경 외 2019) 일반적으로 다른 국가 출신의 여성결혼이민자가 겪는 제2언어습득으로서의 한국어습득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따라서 조선족 여성결혼이민자를 베트남과 필리핀 출신의 여성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비교하여 밀집거주로 인한 언어능력 변화를 살펴본 점은 다소 아쉽다.

주월랑(2021)의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의사소통의지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서 언어불안과 문화적응의 관계를 살펴본 바, 언어불안이 의사소통의지를 낮추고, 문화적응이 잘 될수록 의사소통의지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와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왕육요 2020). 김세정(2015)은 여성결혼이민자가 인지하는 모국인과 한국인의 거리가 클수록 한국어숙달도가

높음을 밝혀냈으며 송운옥(2014)은 교사의 피드백 유형을 간접피드백과 직접피드백으로 나누어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쓰기 능력에 주는 영향을 밝혔다.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능력에 영향을 주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관한 기존 논의가 매우 적은 것에 반해 자아존중감을 제외한 기타 정의적 요인이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학습 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학습 동기와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고형진·김영주 2011; 구영산 2012; 권미경·이소연 2017)와 언어 불안과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권유진 외 2010; 김경령 2016; 주월랑 2021)가 있으며 자기효능감과의 영향도에 관해 연구한 것 등이 있다(안한나 2018; 손성희 외 2012; 강귀중·조위수 2018). 국내에서 자아효능감, 자기신뢰감, 언어불안과 같은 정의적 요인의 영향연구는 활발히 진행되는 반면에 자아존중감 자체에 관한 연구가 미비한 것은 ‘자아’개념의 복잡성과 모호함으로 인해 연구자마다 상이한 정의를 내리고 (Reasoner 1992) 자아존중감을 측정할 수 있는 신뢰도 있는 지표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문제(Kohn 1994; Wiley 1974; Rubio 2021: 38에서 재인용)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3.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총 8년에 걸쳐 수집한 종단자료인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MAPS: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중 학부모 자료¹를 활용한 2차 자료 분석 연구이다.

잠재성장모형은 적어도 세 개 이상의 시점에서 측정되어야 추정이 가능하며

1 MAPS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을 포함하여, 그들의 부모를 패널로 선정하여 독립된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부모 중 아버지, 혹은 한국여성과 남성결혼이민자가 섞여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연구대상자를 여성이면서 출신국가가 한국인이 아닌 자로 한정하였다.

모형의 안정적인 추정을 위해서는 측정시점의 개수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Kline 2005; 김동진 2019: 8에서 재인용). 따라서 MAPS 1차년도(2011년)에서 4차년도(2014년)까지의 다문화청소년의 학부모 중 일본과 중국 조선족 출신을 제외한 외국인 어머니로 한정²하였으며 최종 연구대상자는 1차년(2011년)도 440명, 2차년(2012년)도 406명, 3차년(2013년)도 384명, 4차년(2014년)도 368명으로 확인되었다. 결측값에 대해서는 다중대체방식(Multiple Imputation)을 적용하여 언어능력의 변화량을 추정하였다.

1차년도(2011년)에서 4차년도(2014년)까지의 자료는 자녀가 초등학교 4학년 부터 중학교 1학년에 이르는 시기로서, 이를 분석에 사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MAPS 자료 특성상 1차년도, 즉 2011년을 기점으로 하여 본조사가 최초로 진행되었으며, 언어능력 경우에도 4차년도(2014년)까지 연속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둘째,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특정 시점의 여성결혼이민자 한국어능력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발달 양상과 그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보고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지각된 한국어능력에 관한 연속된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진 1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를 대상으로 그 영향요인을 살펴보는 것이 유의미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즉 연령, 한국어 학습기간, 소득, 직업 유무 및 현재 직업, 한국 거주기간, 출신국가 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³ 첫째, 연령은 조사 기간 기준(2011년) 평균 39.29 ± 4.36 세로 범위는 최소값 31세에서 최대값 60세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어 공부 기간은 평균 2.05 ± 3.31 년으로 범위는 최소값 0년에서 최대값 16년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업 유무는 직업이 없는 경우가 144명(32.73%), 직업이 있는 경우가 296명(67.27%)로 나타났다. 직업군 비율은 전문가, 관리자 및 사무 종사자가 113명(25.68%), 판매 서비스 종사자 31명(7.05%), 농림 어업 종사자 31명(7.05%), 기계 조작 및 단순 노동 종사자 77명(17.50%), 학생 및 주부 144명(32.73%), 기타 44명(10.00%)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한국 거주기간은 평균 12.02 ± 1.84 년으로 범위는 최소값 10년에서 최대값 24

2 일본출신의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통일교라는 종교적 동기로서 이주하는 경우가 많다(이정희 2012).

3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1차년(2011년) 자료를 제시하였음.

년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어머니 출신국가는 중국(한족)이 73명(16.59%), 베트남이 12명(2.73%), 필리핀이 274명(62.27%), 태국이 37명(8.41%), 기타가 44명(10.0%)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종속변수: 언어능력

본 연구에서 설정한 종속변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언어능력을 묻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언어능력은 본인이 지각하고 있는 ‘한국어 말하기’, ‘한국어 쓰기’, ‘한국어 읽기’, ‘한국어 듣기’ 수준이며, 리커트 4점 척도에 해당하는 ‘전혀 못함(1점)’, ‘못하는 편(2점)’, ‘잘하는 편(3점)’, ‘매우 잘함(4점)’ 등에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내적 일치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를 산출한 결과 1차년(2011년)의 언어 능력은 .851, 2차년(2012년)의 언어 능력은 .841, 3차년(2013년)의 언어 능력은 .829, 4차년(2014년)의 언어 능력은 .861로 그 기준값을 모두 만족하였다.

(2) 독립변수: 자아존중감

본 연구에서 설정한 독립변수는 자아존중감 변인으로 1차년(2011년)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문항내용은 ‘나는 다른 사람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좋은 품성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역코딩)’,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역코딩)’,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나는 가끔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느낌이 든다(역코딩)’, ‘나는 때때로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역코딩)’ 등으로 구성되며, 리커트 5점 척도에 해당하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별로 그렇지 않다(2점)’, ‘중간이다(3점)’, ‘대체로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 등에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내적 일치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를 산출한 결과 .747로 그 기준값을 만족하고 있었다.

(3)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 설정한 통제변수는 생활 스트레스, 가구원 수, 주로 어울리는 사람, 연령, 학력, 출신국가, 경제적 수준(가정형편 지각), 국적 정체성, 한국어 공부 기간, 직업 등으로 1차년(2011년)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우선 생활 스트레스는 '아이들 때문에 걱정이었다', '남편 때문에 걱정이었다', '친구 때문에 걱정이었다', '시부모 또는 시댁식구 때문에 걱정이었다', '친정부모 또는 친정식구 때문에 걱정이었다', '가족의 건강 때문에 걱정이었다', '가족에 대한 의무 때문에 걱정이었다' 등으로 구성되며, 리커트 4점 척도에 해당하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 '약간 그렇다(2점)', '상당히 그렇다(3점)', '아주 많이 그렇다(4점)' 등에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Cronbach's α 를 산출한 결과 .891로 그 기준값을 만족하였다.

가구원 수는 실제 가구 구성인원을 묻는 문항으로 최소 2명에서 최대 10명까지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다음으로 주로 어울리는 사람 문항은 '모국 또는 나와 같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과 어울린다', '한국 사람이나 모국 또는 외국에서 온 사람들과 어울린다', '대부분 한국 사람들과 어울리고 가끔 모국인과 어울린다', '한국 사람들하고만 어울린다'로 구성되어있다. 연령은 30세부터 60세까지 본인의 실제 연령을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며, 학력은 '중졸이하', '고졸', '대학(2~3년제)', '대학교(4년제 이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신국가의 경우 '중국(한족, 기타민족)', '베트남', '필리핀', '태국', '기타' 등에 응답하였으며, 경제적 수준은 가정형편에 대한 지각 정도로 '아주 어렵다', '어려운 편이다', '보통이다', '잘사는 편이다', '아주 잘 산다'등으로 구성된다.

국적 정체성은 '한국인', '모국인', '기타'에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한국어 공부 기간은 최소 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년 단위로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직업은 직업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이분화 하였다.

마지막으로 측정척도는 MAPS에서 조사한 측정척도를 그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종속변수는 4점 척도로 독립변수는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3) 자료처리방법

본 연구는 성장혼합모형을 활용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언어능력에 대한 잠재 집단을 분류해보고,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을 분석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이상의 분석을 위한 분석 전략을 다음과 같다.

잠재집단의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최종 모형 선택을 위해 통계적 기준으로 모형 비교 검증, 정보 지수 등을 활용하였다(정송 외 2014). 모형 선택을 위한 정보 지수는 BIC, LMRT의 p-value, Entropy 등을 참고하여 판단하였으며 실제적 유용성과 해석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Schwartz 1978)은 그 기준 값(cut-off point)이 존재하지 않으나 낮을수록 좋은 적합도라고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모형 선택 시 Akaike(1987)에 의해 개발된 잠재 프로파일의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BIC, LMRT의 p-value, Entropy 등을 참고하여 판단하였으며 실제적 유용성과 해석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AIC값도 많이 사용되어지나, AIC값에 비해 BIC의 값이 더 우수한 수행력을 가진다고 보고되어 지므로(Peugh and Fan 2012), 이 연구에서는 BIC값만을 모형 선택에 활용하였다. Entropy는 분류의 질(the quality of the classification)을 의미하며, 0에서 1 사이의 값을 나타낸다. 0에 가까울수록 무작위(randomness)로 분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1에 가까울수록 정확한 분류를 의미한다(Celeux and Soromenho 1996). LMRT는 잠재계층 수가 k 인 모형과 $k-1$ 을 비교하는 것으로서, 이 값의 p-value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경우 k 모형을 선택한다(McLachlan et al. 2000).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적용한 분석은 Mäkikangas et al.(2018)이 제시한 6 단계 분석 절차를 적용하였고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연구문제 정의 및 변수 선정, ② 분석을 위한 데이터 핸들링(결측값 처리 및 이상치 제거), ③ 연구 모델 정의 및 구체화, ④ 잠재집단추정, ⑤ 모형 적합도를 이용하여 최적의 잠재 집단 수 결정, ⑥ 자아존중감과 잠재 집단의 인과관계(로지스틱 회귀분석)를 추정이다. 이상 모형에 대한 추정방식은 최대우도 추정방법을 사용하

였고 분석 프로그램은 Mplus 7과 Stata 16을 사용하였다.

4. 연구 결과

1) 잠재집단 분석

여성결혼이민자의 언어능력, 즉 지각된 말하기 능력, 지각된 읽기 능력, 지각된 쓰기 능력, 지각된 듣기 문항에 대한 성장혼합모형 분석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우선 성장변화 경로를 잘 설명하는 최적의 잠재집단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2개 잠재집단을 시작으로 집단의 수를 하나씩 추가하면서 4개 집단까지의 모형을 검증하였다. 성장혼합모형에서 잠재집단을 결정하기 위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으나 다음의 지수, 즉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SSA-BIC(Sample Size Adjusted-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Entropy, Adj.LMR-LRT(Adjusted Lo-Mendell-Rubin Likelihood Ratio Test), BLRT(Bootsrapped Likelihood Ratio Test) 등을 활용하였다.

상기에서 제시한 지수들 중 AIC와 BIC는 상대적인 질을 측정한다. 이는 모형의 적합도와 간명성을 고려하여 모형 선택의 기준을 제시하나,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 추정된 모형들 중 어느 것이 상대적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정보만 제공해준다(두송화·장재운 2015). 한편 AIC와 BIC는 자유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단점이 존재해 이를 보완한 SSA-BIC를 함께 고려한다. <표 1>에 제시한바와 같이 LCGA, GMM-CI, GMM-CV에서 모두 집단의 수가 추가 될수록 AIC, BIC, SSA-BIC 값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이 지수만으로 특정 잠재집단의 적절성을 판단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았다. 따라서 Entropy 지수, 그룹 사이즈 및 해석 가능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해 보았다. 그 결과 LCGA, GMM-CI, GMM-CV에서 잠재집단을 3개 이상으로 분류할 경우 특정 잠재집단에서 표본의 비중이 10% 이하로 나타나, 2개 집단 모형이 상대적으로 적합한 모형임을 알 수 있었고 그 중

LCGA의 2개 집단 모형이 가장 적합한 모형임을 알 수 있었다.

표 1. 여성결혼이민자 언어능력의 잠재집단 모형 적합도

Fit statistics		2 classes	3 classes	4 classes
<i>LCGA</i>				
LL(No. of Parameter)		-951,336(9)	-843,725(12)	-823,905(15)
AIC		1920,672	1711,450	1677,809
BIC		1957,453	1760,491	1739,111
SSA-BIC		1928,891	1722,409	1691,508
Entropy		.912	.843	.743
Adj.LMR-LRT(p)		316,535(.000)	204,048(.000)	37,582(.011)
BLRT(p)		333,870(.000)	215,223(.000)	39,640(.000)
Group size(%)	C1	46(10,5)	76(17,3)	21(4,8)
	C2	394(89,5)	330(75,0)	252(57,3)
	C3		34(7,7)	34(7,7)
	C4			133(30,2)
<i>GMM-CI</i>				
LL(No. of Parameter)		-829,669(12)	-817,286(15)	-801,739(18)
AIC		1683,338	1664,573	1639,478
BIC		1732,379	1725,874	1713,040
SSA-BIC		1694,297	1678,271	1655,917
Entropy		.904	.843	.848
Adj.LMR-LRT(p)		41,021(.003)	23,479(.268)	28,880(.003)
BLRT(p)		43,268(.000)	24,765(.000)	30,462(.000)
Group size(%)	C1	31(7,0)	31(7,0)	53(12,0)
	C2	409(92,9)	36(8,2)	343(78,0)
	C3		373(84,8)	22(5,0)
	C4			22(5,0)
<i>GMM-CV</i>				
LL(No. of Parameter)		-809,752(15)	-788,200(21)	-762,592(27)
AIC		1649,503	1618,400	1579,183
BIC		1710,805	1704,222	1689,526
SSA-BIC		1663,202	1637,578	1603,841
Entropy		.468	.744	.682
Adj.LMR-LRT(p)		80,887(.047)	41,955(.367)	49,851(.064)
BLRT(p)		83,102(.000)	43,104(.000)	51,216(.000)

Group size(%)	C1	272(61.8)	101(23.0)	138(31.4)
	C2	168(38.2)	308(70.0)	215(48.9)
	C3		31(7.0)	68(15.5)
	C4			19(4.2)

LCGA: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GMM-CI: Growth Mixture Model with class-invariant variances and covariances.

GMM-CV: Growth Mixture Model with class-varying variances(constrained covariances to be equal across classes).

2)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능력 변화의 잠재집단 별 특성

여성결혼이민자의 언어능력 변화의 잠재집단 별 특성은 서로 다른 초기값과 변화율을 가진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이상의 집단으로 분류하게 된 기준은 상기에서 제시한 적합도 지수를 근거로 판단하였다.

각 유형의 초기값과 변화율을 토대로 성장 경로를 추정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첫 번째 유형은 C1(유지형 집단)으로 언어능력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등 특정 패턴을 나타내지 않는 집단이다. 유지형 집단의 경우 초기값은 3.617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변화율은 -.012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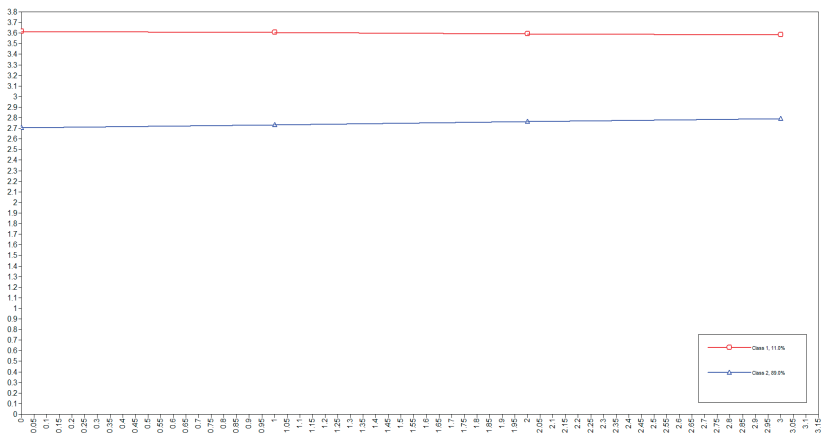


그림 1. 여성결혼이민자의 언어능력 변화와 잠재집단

않았다. 전체 여성결혼이민자의 10.5%가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유형은 C2(상승형 집단)으로 언어능력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집단이다. 상승형 집단의 경우 초기값은 2.704, 변화율은 .029로 둘 다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으며, 89.5%가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으며, 여성결혼이민자의 언어능력이 ‘유지형’과 ‘상승형’으로 의미 있게 구분된 점은 본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다.

표 2.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능력에 관한 초기값 및 변화율 추정

LCGA*	Intercept		Slope	
	Mean (S.E.)	Variance (S.E.)	Mean (S.E.)	Variance (S.E.)
C1	3.617*** (.120)	.000 (.000)	-.012 (.040)	.000 (.000)
C2	2.704*** (.023)	.000 (.000)	.029*** (.008)	.000 (.000)

* LCGA에서는 집단 내 분산을 모두 고정하여 추정함.

3) 잠재집단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로지스틱 회귀분석

앞서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결혼 이주 여성의 한국어능력은 유지형과 상승형이라는 두 가지 잠재집단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두 가지 잠재집단을 어떤 변인이 설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Model 1에서는 독립변수, 즉 자아존중감만을 투입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Model 2에서는 독립변수와 통제변수, 즉 생활 스트레스, 가구원 수, 주로 어울리는 사람, 연령, 학력, 출신국가, 경제적 수준, 국적 정체성, 한국어 공부 기간 및 직업 등을 통제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성장혼합모형에서는 설명 변인에 따라 준거 집단(reference group)에 비해 다른 집단에 소속될 확률을 추정하므로, C1(유지형 집단)을 준거 집단으로 설정하고 C2(상승형 집단)에 소

속될 확률을 분석하였다. 다음 <표 3>은 Model 1와 Model 2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Model 1 분석 결과 자아존중감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증가하면, 유지형 집단에 비해 상승형 집단에 소속될 확률이 1.899배 증가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C.I.=828\sim 4,355$).

가구원 수, 주로 어울리는 사람, 연령, 학력, 출신국가, 경제적 수준, 국적 정체성, 한국어 공부 기간 및 직업 등을 통제 변인으로 설정한 Model 2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독립변수로 설정한 자아존중감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증가하면, 유지형 집단에 비해 상승형 집단에 소속될 확률이 13.696배 증가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C.I.=1,772\sim 105,864$).

다음으로 이민자 제2언어습득의 영향요인으로 잘 알려진 변수들을 추가로 검증하였는데 결과는 아래와 같다.

우선 <일상생활 스트레스>의 경우 부정적인 방향으로 증가하면, 유지형 집단에 비해 상승형 집단에 소속될 확률이 .307배 감소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C.I.=.110\sim .864$). <주로 어울리는 사람>은 한국인과 모국인($OR=2,292$, $C.I.=.218\sim 24,102$), 대부분 한국인($OR=.973$, $C.I.=.071\sim 13,303$), 한국 사람들만($OR=1,712$, $C.I.=.094\sim 31,115$)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연령>의 경우에도 한국어능력 잠재집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OR=.840$, $C.I.=.713\sim .990$).

<학력>은 고졸이하($OR=2,868$, $C.I.=.203\sim 40,530$), 대학졸업(2~3년제)($OR=.357$, $C.I.=.011\sim 10,878$), 대학교 졸업(4년제)($OR=.634$, $C.I.=.029\sim 13,605$)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출신국가>의 경우 중국(한족)에 비해 베트남, 필리핀과 태국 출신자는 유지형 집단에 비해 상승형 집단에 소속될 확률이 .041배 감소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C.I.=.008\sim .200$). <가정형편에 대한 지각>은 한국어능력 잠재집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OR=2,038$, $C.I.=.776\sim 5,353$). <국적정체성>은 모국인($OR=1,176$, $C.I.=.161\sim 8,563$), 기타($OR=.484$, $C.I.=.106\sim 2,193$)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국어 공부 기간>의 경우 그 기간이 증가하면 유

지형 집단에 비해 상승형 집단에 소속될 확률이 1.138배 증가하며, .1 미만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C.I.=.977~1.325). <직업>은 없는 경우에 비해 있는 경우, 유지형 집단에 비해 상승형 집단에 소속될 확률이 6.310배 증가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C.I.=1.074~37.065). 이 같은 결과는 기존 이민자대상의 이주국가 언어능력이 연령, 경제적 환경, 학력과 정적인 관계라고 밝힌 기존의 연구결과와 대치되며 이는 국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습득이 보편적 이민자 제2언어습득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3. 잠재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준거집단: 유지형, 비교집단: 상승형)

변인		Model 1		Model 2		
		OR(S.E.)	95% C.I.	OR	95% C.I.	
독립 변수	자아존중감	1.899* (.011)	.828~4.355	13.696* (14.291)	1.772~105.864	
통제 변수	생활 스트레스			.307* (.162)	.110~.864	
	가구원 수			1.030 (.332)	.547~1.940	
	주로 어울리는 사람	모국인, 외국인 (Ref.)			Ref.	-
		한국인, 모국인			2.292 (2.751)	.218~24.102
		대부분 한국인			.973 (1.299)	.071~13.303
		한국 사람들만			1.712 (2.533)	.094~31.115
	연령			.840 (.070)	.713~.990	
	학력	중졸 이하(Ref.)			Ref.	-
		고졸 이하			2.868 (3.876)	.203~40.530
		대학 졸업 (2~3년제)			.357 (.622)	.011~10.878
		대학교 졸업 (4년제)			.634 (.992)	.029~13.605

통 제 변 수	출신 국가	중국(한족)(Ref.)			Ref.	-
		베트남, 필리핀, 태국			.041*** (.033)	.008~.200
		기타			.208 (1.00)	.024~1.776
	경제적 수준: 가정형편 지각				2.038 (1.004)	.776~5.353
	국적 정체성	한국인(Ref.)			Ref.	-
		모국인			1.176 (1.191)	.161~8.563
		기타			.484 (.373)	.106~2.193
	한국어 공부 기간				1.138† (.088)	.977~1.325
	직업	없음(Ref.)			Ref.	-
		있음			6.310* (5.700)	1.074~37.065
	상수		.011**	(.000~.151)	.010	(.000~266.203)

Model1: Crude OR (95% CI).

Model2: multivariable-adjusted for OR (95% CI).

† p<.1, *p<.05, **p<.01, ***p<.001.

5. 논의 및 결론

1)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MAPS를 활용하여 1)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능력 변화와 그에 따른 잠재그룹을 분류하고 2) 잠재그룹 형성에 대한 영향 요인으로서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3) 이민자 이주국가 언어습득의 영향요인으로 알려진 것들이 국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능력 습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논의를 제시한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능력

변화는 ‘유지형’과 ‘상승형’ 두 가지로 나타났다. ‘유지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국어능력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특정 패턴을 보이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하는 집단을 뜻하며 ‘상승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국어능력이 꾸준히 상승하는 집단을 뜻한다. 이는 종래 이민자의 언어능력이 거주기간에 따라 점차 상승하거나(조현지 2011)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연령의 증가로 인해 오히려 하락한다고 주장한 논의와(황민철 2016) 다른 결과를 드러낸다.

둘째, 자아 존중감 변인은 여성결혼이민자 언어능력과 관련된 잠재집단을 분류하는데 높은 설명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한 자아존중감을 가진 여성결혼이민자는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상승형 그룹에 속할 가능성이 무려 13배 이상 높았음을 연구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그간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 관련 논의가 주로 교육 내용, 교재, 교수법에 국한되어 이루어지고 자아존중감의 영역은 개인적 생활만족도 차원의 변인으로만 다루어져 왔으나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자아존중감이 생활만족도 뿐만 아니라 언어능력 향상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셋째,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능력에 소득수준, 취업여부, 연령, 학력 등이 미치는 영향은 기존의 이민자 이주국가 언어습득에 관한 선행논의와 부합되지 않는 것이 많았다. 이는 한국 거주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습득 양상이 국외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이민자 제2언어습득과 다른 형태로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따라서 국내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능력 발달에 대한 예측과 추정에 있어 기존논의를 그대로 적용하기에 위험이 따를 수 있음을 알려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 국내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능력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률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집단으로 구별되어 각기 다른 양상으로 발달한다는 점, 이러한 구별을 가능하게 하는 변인으로 자아존중감이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기존 이민자 제2언어습득 영향요인 연구결과와 대치되는 요소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국내 여성결혼이민자의 특수한 환경과 배경을 고려하여, 이들의 한국어능력 영향요인에 관한 다양한 변인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야 할 필요성을 드러낸다.

2) 제언

본 연구에서는 국내 거주 유자녀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능력 발달에 관한 종단자료를 성장혼합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상승형’과 변화를 보이지 않는 ‘유지형’, 두 개의 잠재그룹으로 나뉜다는 것과, 이러한 차이를 가능하게 하는 변인으로서 자아존중감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종속변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능력은 공인된 어학시험 결과로서가 아닌 본인이 스스로 지각하는 말하기, 읽기, 쓰기, 듣기의 수준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다소 객관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현재로서 여성결혼이민자의 검증된 어학실력을 분석한 1차자료 제공기관이 없기 때문에 2차자료 분석 연구로서만 수행이 가능한 종단연구의 특성상 다른 대안이 없었다는 점을 밝히며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능력이 지속적인 성장곡선을 가지기 위해서는 거주기간 10년차 이상의 유자녀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재는 대부분 가정생활을 기본으로 하는 기초생활에 관련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으며 그 역할도 가사와 돌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심혜령·조옥이 2017: 99). 김선정(2007)은 거주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여성결혼이민자의 말하기와 듣기능력은 크게 발전하지만 읽기와 쓰기에는 지속적인 어려움이 따른다고 밝혔다. 이처럼 여성결혼이민자의 이해능력과 표현능력의 발달 양상이 상이하기 때문에 장기체류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구체적인 영역별 한국어능력 영향요인 연구 및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천적 프로그램 개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한다.

둘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자아존중감과 한국어능력 습득의 상관관계에 관한 학계의 노력이 요구된다. 연구결과에서 확인하였듯이, 자아존중감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증가하면 한국어능력이 ‘상승형’에 속할 확률이 무려 13배 이상 높아진다. 그간 국내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능력을 실질적으로 발달시키는 변인으로서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것에 반해 향후

관련 연구가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여실히 드러내 준 것이다.

셋째,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능력 발달 필요성을 기능중심에서 인간중심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동안 다문화자녀의 언어능력 영향요인이 무척이나 주목받은 것에 비해 여성결혼이민자의 언어능력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이유는 다문화청소년은 차세대 한국을 이끌어갈 글로벌 인재로서의 가치를 부여받지만,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그보다는 좀더 ‘타자화’된 관점에서 여러 가지 기대역할을 수행하는 존재로서 주로 논의되어 왔기 때문이다(최은경 외 2019). ‘학부모역할’에 필요한 표현과 어휘 연구(공지연 2010; 심보경·김정숙 2012), ‘자녀양육’에 필요한 부모교육 관련 연구(한경남 2012; 이은아 2013), 가정 내에서 ‘재생산 역할’에 근거한 한국어 교재개발 방안(유해준 2011)등의 연구들이 그 사례이다. 그러나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있어 한국어학습의 동기는 새로운 언어적 세계를 접하면서 성장해 나갈 자신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지역사회에서 가족과 이웃과의 교류를 통해 초국적 자아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하고자 하는 목적이 더욱 크다(최은경 외 2019). 조일동(2020)이 주장하였듯이 ‘국민의 개념이 국경을 경계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맥락적으로 ‘연행’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젊은 시절 한국으로 건너와 생애의 절반이 넘는 시간 동안을 한국 땅에서 한국 가족의 구성원으로 보내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삶 이야기 역시 ‘선택적 한국인의 삶’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해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생애사 연구에서 언어갈등에 대한 소재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유 역시 자아존중감과 언어능력 변화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타자화 된 대상으로서의 이주여성 언어능력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보다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절대적인 장치로 기능하는 한국어능력 발달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지 이 같은 제언을 남긴다.

교신: 최원미(한국학대학원 한국문화학과 석사과정)(wonmi85@hanmail.net)

Correspondence: Won Mi Choi(Master's Student, Korean Culture and Society,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wonmi85@hanmail.net)

2022.01.18 접수, 2022.02.07 심사, 2022.05.22 게재확정

참고문헌

- 강귀종·조위수, 2018, 베트남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동기와 자기효능감의 관련성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6), 231-252.
- 강만철·이숙자, 2017, 여성결혼이민자의 자아존중감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응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검증, 복지상담교육연구, 6(2), 83-108.
- 고형진·김영주, 2011,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자기결정성 동기 유형과 학업 성취도와의 상관관계 연구, 한국어교육, 22(1), 1-26.
- 공지연, 2010, 여성결혼이민자의 학부모 역할 수행을 위한 기본 어휘 선정과 분석 연구, 배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구영산, 2012, 한국어 학습 동기화 과정에 대한 연구: 국제 한인 입양인을 둘러싼 '결핍의 담론'생산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23(1), 183-217.
- 권미경·이소연, 2017,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어학습 동기와 학업성취에 관한 질적 연구, 새국어교육, 110, 147-181.
- 권복순, 2009, 한국어 능력, 자아존중감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대구지역 베트남, 필리핀, 중국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1(2), 5-32.
- 권순명, 1995, 知覺된 養育經驗이 自我尊重感 및 自己效能感에 미치는 影響, 충남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논문집, 22(2), 215-245.
- 권유진 외, 2010, 외국어불안과 교실상황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어 학습자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85, 381-402.
- 김경령, 2016, 한국어 학습자의 불안도와 쓰기 관련 변인들과의 상관관계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13(3), 29-68.
- 김동진, 2019,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가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종단분석, 시민교육연구, 51(1), 1-26.
- 김미강·김영주, 2021, 중도입국 청소년의 정서적 요인이 한국어 숙달도에 미치는 영향, 국어교육학연구, 56(1), 5-41.
- 김세정, 2015,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문화적 특성이 한국어 숙달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배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두송화·장재윤, 2015, 은퇴자들의 심리적 건강의 변화: 성장혼합모형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8(2), 99-126.
- 민성희·박정호, 2013, 다문화가족 이민자의 한국어실력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다문화가족 밀집거주지의 영향을 중심으로, 아시아연구, 16(2), 179-208.
- 박진옥·최대희, 2019, 다문화가 죄냐?: 다문화가족 한국인 남성의 결혼과 자녀 양육 그리고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 조명문화사.
- 성기철, 2001, 한국어 교육과 문화 교육, 한국어교육, 12(2), 111-135.

- 손성희 외, 2012, 한국어 학습자의 귀인성향,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도 관계 분석, 한국어교육, 23(2), 171-189.
- 송운옥, 2014, 교사 피드백 유형이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쓰기 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보경·김정숙, 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학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시기별 한국어교육 및 자녀 학습 지도방안 연구, 어문연구, 71, 57-78.
- 심혜령·조옥이, 2017, 생애주기적 관점을 통한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재 개발 방안 연구, 새국어교육, 113, 97-117.
- 안한나, 2018, 한국어 학습자의 정의적 특성에 관한 연구: 특수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불안감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14(2), 27-54.
- 왕옥요, 2020, 한국어 학습자의 의사소통 불안감과 의사소통 의지에 대한 연구 : 중국인 한국어 중·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해준, 2011,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구성 방안, 다문화콘텐츠연구, 10, 29-48.
- 이상규, 2007, 여성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의 과제, 어문론총, 46, 101-130.
- 이선미·이경아, 2010,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7(3), 71-105.
- 이은아, 2013, 도시 결혼이주여성의 어머니 노릇과 정체성: 자녀교육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9(3), 115-146.
- 이정희, 2012, 일본인 여성결혼 이민자의 생애사 연구, 일본근대학연구, 35, 233-254.
- 이주여성인권포럼, 2013, 우리 모두 조금 낮은 사람들: 공존을 위한 다문화, 오월의 봄.
- 전홍주 외, 2008, 결혼이민자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자녀 교육지원의 실제와 의미: 필리핀과 일본 어머니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0(3), 161-186.
- 정송의, 2014, 성장혼합모형을 적용한 청소년의 학교 만족도 변화 유형화 및 영향요인 검증, 청소년학연구, 21(7), 193-216.
- 조일동, 2020, 다름을 인정하기, 다름을 이해하기, 같음을 뛰어넘기: 협력생애사 과정에서 드러난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국민과 민족 경계 연행에 대한 분석, 현대사회와 다문화, 10(1), 1-29.
- 조현지, 2011, 거주기간과 상호작용이 여성 결혼이민자의 언어 습득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주월량, 2021, 외국인 유학생의 의사소통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비대면 실시간 수업과 대면 수업을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58, 333-353.
- 최은경 외, 2019, 한국어 학습을 통해 본 결혼이주여성의 생애사 연구, 국어문학, 71, 621-656.
- 한경남, 2012,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 한국영유아보

- 육학, 73, 171-190.
- 한광현·강상경, 2021,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간의 중단적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18(1), 5-39.
- 홍달아기·채옥희, 2006, 사례로 본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정생활실태와 갈등, 한국생활과학회지, 15(5), 729-741.
- 황민철, 2016,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 다문화콘텐츠연구, 21, 43-81.
- Akaike, H., 1987, Factor analysis and AIC. *Psychometrika*, 52(3), 317-332.
- Arabai, F., 2017, Self-esteem of Saudi learners and its relationship to their achievement in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English Linguistics Research*, 6(4), 1-12.
- Arnold, Jane, 2007, Self-concept and the affective domain in language learning. *Self-esteem and foreign language learning*,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Chapter 2.
- Branden, N., 1994, *The six pillars of self-esteem*. New York.
- Brown, H. Douglas, 2014,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언어 학습과 교수의 원리, 한문섭 외 옮김, 2019, 피어슨에듀케이션 사우스 아시아.
- Casal, Sonia, 2007, The social dimension of identity and self-esteem in the foreign language classroom. *Self-esteem and foreign language learning*,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Chapter 5.
- Celeux, Gilles and Gilda Soromenho, 1996, An entropy criterion for assessing the number of clusters in a mixture model. *Journal of classification*, 13(2), 195-212.
- Chiswick, Barry R. and Paul W. Miller, 1998, English language fluency among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Research in labor economics*, 17.
- Chiswick, Barry R. and Paul W. Miller, 2001, A model of destination-language acquisition: Application to male immigrants in Canada. *Demography*, 38(3), 391-409.
- Coopersmith, Stanley, 1965,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Princeton.
- Epstein, H., 1985, Review of the Piers-Harris Children's Self-Concept Scale(The way I feel about myself). *Ninth mental measurements yearbook*, de. J. V. Mitchell, 1168-1169. University of Nebraska, Buros Institute of Mental Measurement.
- Espenshade, Thomas J. and Haishan Fu, 1997, An analysis of English-language Proficiency among U.S. immigran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88-305.
- Habrat, Agnieszka, 2018, *The role of self-esteem in foreign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nd ed). New York, 구조방정식모형: 원리와 적용, 이현숙 외 옮김, 2010, 학지사.

- Kohn, Alfie, 1994, The truth about self-esteem. *Phi Delta Kappan*, 76(4), 272-283.
- Mäkikangas, Anne et al., 2018, Multilevel latent profile analysis with covariates: Identifying job characteristics profiles in hierarchical data as an example.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21(4), 931-954.
- McLachlan, Geoffrey J. et al., 2019, Finite mixture models. *Annual review of statistics and its application*, 6, 355-378.
- Peleg, Ora, 2009, Test anxiety, academic achievement, and self-esteem among Arab adolescents with and without learning disabilities. *Learning disability quarterly*, 32(1), 11-20.
- Peugh, James and Xitao Fan, 2012, How well does growth mixture modeling identify heterogeneous growth trajectories? A simulation study examining GMM's performance characteristic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9(2), 204-226.
- Piechurska-Kuciel, Ewa, 2008, Language anxiety in secondary grammar school students. *Wydawnictwo Uniwersytetu Opolskiego*.
- Piechurska-Kuciel, Ewa, 2012, Gender-dependent language anxiety in Polish communication apprehensives. *Studies in Second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2(2), 227-248.
- Reasoner, Robert W., 1992, Building self-esteem: in the elementary schools: Teachers manual and instructional manuals.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Rosenberg, Morris,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ubio, Fernando, 2021, Self-esteem and foreign language learning.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 Wiley, R. C., 1974, The self-concept: A review of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and measuring instruments, 1,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The Effect of Self-esteem on the Perceived Korean Language Proficiency Development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 Growth Mixed Model Analysis -

Won Mi Choi* · Woo Jin Kim**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patterns of Korean language proficiency development and the influence factors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using the 1st-4th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A Growth Mixture Model analysis was performed to confirm the type of potential group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language proficiency,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identify characteristic variable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Second, 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on the type to analyze the effect of 'self-esteem'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on the classification of potential Korean language proficiency groups.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increase-type group using the maintenance-type group as a reference group, when self-esteem increased in a positive direction, the probability of belonging to the increase-type group increased by 13.696 times compared to the maintenance-type group.

Keywords Female Married Immigrant, Self-esteem, Mixed Growth Model, Korean Proficiency, Second Language Acquisition

* First-Author/Corresponding Author,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Korean Culture and Society, master student, wonmi85@hanmail.net

** Co-Author, University of Texas Rio Grande Valley,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Post-doctoral course completion, mystatsolve@gmail.com